

국 제 갤 러 리

Jean Royère

장 로이에



Jean Royère (French, 1902-1981)

Ours polaire

1950

red sofa, velvet

78 x 240 x 142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2013년 2월 28일 – 3월 31일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장 로이에 (Jean Royère, French, 1902-1981)

전 시 일 정: 2013. 2. 28 - 3. 31

전 시 장 소: 국제갤러리 1관(K1)

개 관 시 간: 월요일-토요일: 10am-6pm, 일요일, 공휴일: 10am-5pm

문 의: PR Director 전민경 (02-3210-9885, 0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Assistant 유현이 (02-3210-9889, 010-8882-5951 / E-mail. bona@kukjegallery.com)

웹 사 이 트: www.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 전시소개

국제갤러리는 오는 2월 28일 디자인을 주제로 한 전시의 일환으로 20세기 독창적인 실내건축디자인의 선구자 장 로이에 (Jean Royère, French, 1902-1981)전을 개최한다. 매년 근·현대 디자인 역사의 주요한 디자이너 및 장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디자인전시는 지난 장 푸르베 전 (2005년), 조지 나카시마 전(2006년), 샤를로트 페리앙 전(2007년), 인테리어 전(2009년,그룹전), 아르데코 전(2010년,그룹전), 그리고 요리스 라만 전(2011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심미적인 디자인 작품들을 국내에 선구적으로 소개한바 있다.

이번 장 로이에 전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전시로서 곡선미와 단순미를 강조한 명쾌한 색상의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작가만의 독창적인 소재와 기법 그리고 율동적인 조형성은 당시 파리(Paris) 디자인의 흐름을 선도했던 실험적인 양식으로 평가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아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을 갖춘 로이에 디자인역사의 궤적은 오늘날의 현대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장 로이에에는 실내건축 디자이너로서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과 패턴, 원목, 그리고 금속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소재와 재료를 조화롭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만의 자유로우면서도 섬세한 표현방식은 시각적으로 수려하면서도 고상한 디자인 양식을 구현했다. 특히 로이에의 대표적인 북극곰 시리즈(Ours Polaire Series)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와 안락함을 강조한 두툽한 소재의 플러시 천(온난하고 편안함이 특징인 벨벳소재의 직물)으로 제작되어 기능적이면서도 조형적인 면을 두루 갖췄다. 이러한 상반되는 면모들의 조화 및 균형은 향후 그만의 고유한 디자인 철학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그 외 조명작품 넝쿨시리즈(Liane)는 프랑스의 아르누보, 곧 ‘새로운 미술’의 의미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 전환시기의 유럽과 미국에서 성행한 표현양식의 영향을 받아 넝쿨 혹은 나뭇가지와도 같은 형태를 섬세하게 연출하여 장식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 특징인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로이에의 디자인은 대담하면서도 세심함을 잃지 않는다. 재료와 소재에 있어서 원목과 금속을 차용한 기법과 당시의 다양한 신소재로 일컬어지던 벨벳, 파스텔 실크, 그리고 대담한 색상의 모직물 등을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는 향후 실용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고전미와 우아함을 지니면서도 재치 있고 유머러스 한 감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쾌하고 화려한 색감을 들 수 있는데, 늘 자연석 혹은 보석 등을 통해 색감을 채집했던 그는 단순하지만 명시성을 강조하여 밝고 유쾌한 실내건축의 이미지를 연출해냈다.



<해당이미지는 본문 참조용으로 별도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장 로이에에는 실내건축디자인뿐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디자인으로서 그의 디자인 철학이 담고 있는 순수한 상상력과 이를 형상화한 독창성, 재료와 기법의 실험적인 접근에서 나타나는 혁신성, 나아가 당시 프랑스 실내건축 디자인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이국적인 면모를 창조해낸 20세기 진보적인 프랑스 디자인의 장인이라 일컬어질 수 있겠다.

KUKJE GALLERY

○ 작가소개

1902년 파리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장 로이에는 이미 디자인에 대한 남다른 감각과 재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회사에 취직하여 안정적인 삶을 보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 세기 동안 가구제작 중심이었던 파리 동부지역(파리 포부르크 세인트 앙투안의 아틀리에)의 공방에서 전통 공예 및 디자인을 사사 받은 후 30대 초반이 되던 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디자인 능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 1933년 로이에는 그의 첫 디자인으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칼튼 호텔의 카페와 레스토랑 리노베이션 커미션 작품을 통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로이에는 당시 안락함의 강조한 기능과 실험적인 스타일이 공존하는 테이블과 반구 형태의 나무를 직조해서 만든 등나무(고리버들)의자를 선보였다. 그는 이 작품들을 통해 당시 젊고 촉망 받는 작가들을 후원하는 소장가들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1934년 19세기 프랑스 예술을 선도하던 기관이자 예술인단체인 살롱 도통(Salon d'Automne)과 1937년 살롱 드 라 소사이어티(Salon de la Société)에서 개최된 전시에 참여, 이후 더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당이미지는 본문 참조용으로 별도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향후 1950년에서 70년에 이르는 아방가르드의 역사에서 로이예의 작품활동 영역은 유럽을 넘어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곳곳으로 선보여졌다. 대표적인 컬렉션 및 경력사항으로는 이집트의 파루크 왕, 후세인 요르단 국왕 및 이란의 샤 국왕, 레바논의 대통령 쉐합 왕자, 차기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 사우드와 그의 조카 파이살 등이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로이예의 자유로운 창조력과 우아함에 매료되어 궁궐의 실내건축 설계를 의뢰해왔고, 지속적인 후원으로 활동을 장려했다. 뿐만 아니라 1959년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테헤란의 원로원 건물(Senate Palace), 예루살렘의 엠베서더 호텔, 테헤란의 파크 호텔, 카이로의 세미라미스 호텔, 베이루트의 브리스톨과 캐피탈 호텔, 요르단 암만의 필라델피아 호텔과 암만 클럽 등 최고급 호텔의 실내건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로이예는 1980년 프랑스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1981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1999년 10월 파리 장식미술사 박물관에서 대규모의 회고 전시를 열었고, 근래에는 약 380여 가지에 이르는 그의 주요한 디자인과 156장에 이르는 작품 드로잉들 및 생전의 인터뷰를 담은 회고적인 성격의 작품집이 출판되었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이미지 편집은 사전 동의 없이 편집이 불가합니다.



Jean Royère (French, 1902-1981)

Installation view, Kukje Gallery
Photo: Kim Sang Tae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110-200 T+82 2 735 8449 F+82 2 733 4879 kukje@kukjegallery.com www.kukjegallery.com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이미지 편집은 사전 동의 없이 편집이 불가합니다.



Jean Royère (French, 1902-1981)

Installation view, Kukje Gallery
Photo: Kim Sang Tae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이미지 편집은 사전 동의 없이 편집이 불가합니다.



Jean Royère (French, 1902-1981)

Installation view, Kukje Gallery

Photo: Kim Sang Tae